

127. 나의 마음은 속지 않아. 9월달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거야.

2015.09.08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하트드웰러스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저희에게 간청해요. 그리고 주님은 저희에게 다소 엄숙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오늘 밤 찬양에서 아름답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함께 춤을 추었어요. 저는 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주님은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 눈을 아주 부드럽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는 이것이 너무 필요 했었어. 나는 너가 와서 내 품에 안기고 나와 춤을 추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했어. 나는 이것이 너무 필요 했었어.

(클레어) 저는 주님이 진정으로 편안해지고 주님에게 완전히 매료된 주님의 신부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신부들이 오는 것을 정말 갈망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모두가 붉은 달과 안식년 그리고 다른 모든 일들에 너무나 관심을 기울여서 저희가 주님에게 했어야 하는 방식으로 주님께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잘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제가 기도시간에 받은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파이프 담배의 향이 방안에 정말 매우 강하게 났어요. 그리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보았어요. 그 향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자주,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실 때 정말로 자신이라는 확인 표징을 주기 위해 이 향기가 제 방에 들어오게 하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메시지가 완전히 성령님에게서 온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표징을 받는 것은 정말 안정이 되었어요.

(예수님) 나의 신부들이 거짓소식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는 방식에서 돌아서고 그들의 온 마음으로 나만을 찾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번 9월달에는 어떠한 중요한 것도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내가 소망하는 거야.

이 모든 예언들은 그들의 마음을 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위해 만들어졌어. 나는 지쳤어, 정말 지쳤어, 그들이 불결한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에 매우 정말 지쳤어. 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내 손과 내 마음에 박혀 있기를 바라고,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들을 알기 위해 찾는 것을 다시는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래. 오 나는 그녀가 순수한 하나의 생각, 한 마음의 헌신 그리고 완전하게 그들의 필요를 나의 손에 맡기어 내 안에 쉬고, 그들 자신을 위한 노력을 그만두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이것은 나에게 끝없는 짐이 되. 그리고 이번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성취어진다면, 그것은 나의 신부들이 세상에 대한 추측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온 마음과 생각으로 나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차단하는 거야. 그것이 내가 이번달에 원하는 것이야.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계획되어 졌던 많은 일들을 막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이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 많은 것들을. 신부들이 나 와 내 말 만을 들었다면 이러한 일들에 시간낭비 되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신부들을 나를 위해 더 생산적이었을 거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신부들아, 내 목소리가 들리니? 오, 나는 너희들이 내 목소리가 들리기를 정말 원해. 이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의 순수한 품으로 돌아와라. 자기 추구하고 노력을 너희들의 뒤에 내려놓아라. 나는 너희들이 그리워, 나는 너희들의 편안한 품이 그리우고, 너희들을 보는 것이 그리워.

나는 너희들이 그리워.

지금 이 내가 너희들의 위로가 필요한 때야. 하지만 너희들은 모든 점쟁이와 예지자를 쫓아갔고 이제 너희들의 노력은 열매가 없어. 나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돌아올 수 있어?

너희들이 매일 나를 친밀하게 안다면 너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자만심은 너희들을 더 깊이 파고 들게 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소식이 나오기도 전에 소식을 얻으려고 하고, 자신과 가족을 구할 수 있도록 정보를 받으려고해. 너희들은 너희들이나 너희들의 가족들은 고사하고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너희들이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나에게서 떨어져서 알고 준비하려는 노력으로 그 끝나는 날에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슬프게도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른 이유야. 나는 사람의 길인 너희들의 길의 오류에서 너희들을 구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교화되는 나의 마음에 가까이 안고 싶었어. 하지만 너희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샛길과 높은 길을 찾았어.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 자신의 생각에서 돌아서서 나를 안을 때야. 나와 나의 세상에 대해 너희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나의 각각의 심장박동이 뛰는 것을 들을때마다 너희들에게 드러날 거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 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이사야1장18절)

나의 신부들아, 지난 두 달 동안 너희들의 교훈을 얻었을 너희들을 나는 기대하고 있어. 너희들의 귀에 오직 딱 맞는 한 곳이 있어. 그것은 내 가슴에 기대어 나의 모든 심장

박동소리를 듣는 거야. 이곳에서 나는 영양분과 정보를 제공하고, 위로하고 준비시킬 거야. 이게 너희들이 필요한 전부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것들이야.

너희들 중 일부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노력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나는 슬퍼.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우주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를 제공하였고 너희들은 대신 세상을 선택하였어.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 시점에서부터 너희들을 내가 인도할 거야. 너희들에게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을 배우고 나를 위로하는 것을 너희들의 모든 마음으로 투자해라. 더 나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가 되어라.

뉴스로 세상을 쫓는 너희들의 방식에서 깨닫고 돌이킬 때, 나는 내 마음이 뛰는 순수한 근원에 귀를 기울이도록 부드럽고 반응하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클레어) 이 메시지 기록을 마친 후에 매우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인터넷의 처음 화면에서 레마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터넷의 레마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맞본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을 맞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가서의 배우자는 예루살렘에서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지만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이 태어났을 때보다 더 나빠짐 없이 세상을 다룬 적이 절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제 마음에 가져오는 것은 저희가 영의 음성을 들을 때 계속되는 미세 조정(tuning)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아주 미세한 조정이고 세상의 소음과 잡음과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소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다면 영의 고요함과 조용한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드러운 귀를 만들면서 영과 주님의 아주 감지하기 힘든 음성을 들었어요. 저희가 그 귀를 만들면서 저희는 너무 시끄럽고 고압적인 세상적인 소리로부터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크고 세상적인 소리를 계속해서 받는다면 여러분의 귀는 주님과 주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정말로 들을 만큼 민감하지 않게 되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서 저희는 저희가 듣는 세상적인 소리를 정화하기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 세상적인 소리를 정화하고 오직 주님의 마음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요.